

몸의 미학 -Ultramarine

글/ 김용대

1. 김춘수의 작업은 최소한으로 단순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는 캔버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을 손가락으로 반복해서 강하게 긁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표류하듯 느린 속도로 바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서 있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기 충격처럼 강력한 것으로, 그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실존의 한 형식이다. 생각을 비우고 이러나 어떤 편견을 뒤집는 과감함을 보여주는 응답으로서, 그의 푸른 캔버스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보는 이에게 실존의 내면화를 체험케하는 독특한 양식이 되고 있다. 그것은 예술의 가치를 재현적 미술 개념과 다른, 지각적 성질 너머에 있는 어떤 단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의 푸른 색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해석이 필요한 대상적 성격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푸른 비례의 캔버스를 그렇게 존재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물질에서 해석의 영역으로, 지각적 영역에서 비지각적인 영역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김춘수의 푸른 캔버스는 단순한 표면, 지시대, 물감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는 모노톤의 푸른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온 시간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가 30여 년 동안 작업한 수백 개의 푸른 캔버스들은 그러한 맥락에 속해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여 “작품이 놓이는 장소가 곧 작업의 완성” 이라고 하는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 작품이 놓인 장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의미는 지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개별적인 진술에 의거한 읽은 법을 배워야만 그 해독이 가능하다. 갤러리·미술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노크롬 회화들과 비슷해 보이는 그의 푸른 캔버스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들로, 기능적으로 발라진 푸른 물감이 아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어 ‘시각과 경험 사이’에서 많은 것을 유추하게 한다. 그의 작업에서, ‘푸른색’은 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동일한 푸른색 또한 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것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새로운 것을 보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김춘수의 사유방식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이 동시성을 가진다.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이전 과정이 잠시 남아있으며, 새로운 과정이 추가되는 이후에도 이전의 과정을 머금은 관계·비중·가치 등이 재조율되며, 인과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듯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기치 않은’ 텅 빈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방식은 순차적 시간에 의해서 캔버스에 쌓이고 압축되고 있지만 그것은 지각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난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아무 의미도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그의 푸른 캔버스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예술로 보기 위해서는 그의 작업 가정과 의미에 의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일한 채도의 획일적인 표면뿐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만 발언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의 크기와 형태, 빛나는 푸른색의 표면과 캔버스의 가장 자리, 그것들과 공간사이의 거리 등에 미묘하게 반응할 뿐이다. 마치 벽인 양 고정되어 있는 그의 푸른 캔버스는 사실 벽과 다르게 칠해진 것으로, 그 과정의 다양한 파열과 혼돈 속에서 다중적인 지시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노크롬 회화라고 하는 기존의 유사성에서 떨어져나와 특수한 공간 속에서 물음과 회의를 떠올리는 새로운 ‘형식 모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정이 집적된 그의 푸른 캔버스는 텍스트 없는 페이지로서의 발언이며 알 수 없는 미래의 시작이다. 미래의 시작으로서 텅 빈처럼 보이는 캔버스, 무한처럼 느껴지는 푸른 색,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사각형의 비례는 가득함의 암시이며 표면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는 장소이다. 즉각적인 만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곳이 아닌, 어떤 편견의 위험을 차분히 일깨워 주고 소통을 전제로 하는 지혜와 삶의 경험이 만나는 장소이다. 그의 작업에서, 과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며, 모노크롬 회화와 양식적 비교로 정리될 수 없는 ‘몸의 미학’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캔버스 속에 담겨있는 순차적 과정들이 캔버스 밖으로 단번에 드러나는 ‘잠재적 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4. 김춘수의 작업은 몸의 매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적이기 보다 실천적이며 생각하는 내용과 그 실천으로서의 방법이 뒤섞이는 그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식의 섞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의 화면은 역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텅 빈과 무의 형식으로서 “캔버스를 통해 발견되는 공간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의 ‘소거’로서 일반적인 평면회화처럼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내러티브 회화와 단절을 의미하며 환영주의 회화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김춘수의 푸른 캔버스는 ‘특수한 물질’에서 ‘고유한

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에 의해서, 푸른 물질은 정체성이 변화되어 훌륭한 상상력을 가진 하나의 예술적 사물 또는 시각적 언어의 제안이 되고 있다. 그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질'을 예술에 관한 자신의 '진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화로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전제로서 푸른 캔버스를 설정하고 있다. 그의 사유적 실험은 반복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몸'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의 물질을 의식의 단계로 바꾸고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는 특정한 방식이 사라지는 현상을 만나게 된다. 그 특정한 방식이 사라지는 푸른 물질의 내러티브가 캔버스에 정지된 듯 남아있는 멈춤이, 바로 김춘수의 "몸의 미학 - ultramarine"이다.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미술적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해될 때, 김춘수의 푸른 캔버스는 비로소 예술에 관한 철학적 사유로 이해될 수 있다.